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의 할례받은 인식론과 종교없는 종교성: 할례의 상처와 피를 중심으로

김 이 석*

1. 서론
2. 해체의 종교성
3. 써컴페션 (Circumfession)과 데리다베이스 (Derridabase)
4. 새로운 언어: 할례의 피와 잘림
5. 할례: 피흘리게 하라
6. 해체철학과 할례받은 고백 Circumfession
7. 결론

1. 서론

한 사람이 있다. 그는 피 흘리면서 두 팔 벌려 기도하는 듯하며 눈물 흘리고 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 이 모습은 십자가에서 고난받은 예수의 모습을 묘사한 게 아니다. 놀랍게도 철학자 자크 데리다의 모습이다. 무신론자요 회의주의자 그리고 상대주의로 비난받는 데리다가 종교적 형태와 기도의 가능성은 외포 내포하고 있다. 그의 철학은 냉혹한 해체의 철학으로 멈춤없이 영원히 해체만을 일삼는 파괴주의자로 오판되었지만 그의 글 속에서 그는 냉혹한 상대주의 회의주의자가 아닌 종교성을 품고 기도하는 종교인 데리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데리다의 해체철학은 현존과 동일성의 형이상학을 해체하고 뒤흔들었다. 그 여파는 종교에도 미쳐서 현존과 동일성의 기초 위에 세워졌던 종교는 해체의 대상

* Drew University

이었고 그 갈등은 결국 해체철학과 종교를 양립불가의 관계로 보이게 했다. 하지만 이 갈등에도 불구하고 곧 해체철학은 많은 신학자와 종교학자들의 관심을 끌게 되었다.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테리다의 철학이 가진 종교적 차원에 대한 주장과 함의는 매력적이었기 때문이다. 그의 철학은 무신론적 바탕 위에 있었지만 종교적 신학적 지평위에서의 대화를 가능케 할 요소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대륙철학자들과 신학자들은 테리다 철학의 종교성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테리다 해설가이자 한때 사신철학의 대표격이었던 존 카푸토(John Caputo)는 테리다의 해체철학이 가진 종교성을 일찍이 발견하였다. 그래서 형이상학적 신론의 붕괴 이후 새로운 형이상학의 가능성들을 테리다의 철학에서 발견하였고 테리다의 해체적 종교성을 “눈물과 기도의 철학 philosophy in prayers and tears”¹⁾이라고 불렀다. 카푸토는 현존과 동일성의 해체에서 회의와 붕괴가 아닌 새로운 종교성을 발견한 것이다. 형이상학적 존재론의 해체는 종교를 붕괴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종교성을 살렸다고 보면서 이전의 철학자의 신이 아닌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을 되찾게 하였다는 것이다. 테리다의 종교성에 관심을 두는 학자들은 테리다를 전기와 후기로 구분짓는다. 이를 “종교적 윤리적 전환”이라고 부른다.²⁾ 이들 학자들은 후기 테리다에게서 문학적 종교적 예언자적 면모를 발견한다. 반면에 그를 철저한 철학자로서 무신론자 혹은 종교와는 무관하게 바라 보는 학자들은 이러한 구분에 대해서 회의적이다.³⁾ 테리다에게 “윤리적 종교적 전환”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마틴 해글룬트 (Martin Hägglund)는 그의 책, *Radical Atheism: Derrida and Time of Life*에서 테리다는 항상 일관되게 무신론적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는 테리다가 한결같이 무신론적이었으며 종교적으로 이용되는 저작들도 전기와 동일하게 로고스중심주의, 동일자의 철학을 해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테리다의 철학이 종교적으로 얼마만큼이나 관계성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질문이다. 테리다 본인도 분명하게 자신이 무신론자라고 주장하였기에 신학자와 종교학자들의 해석은 자의적이며 인위적 이

1) Jacques Derrida and Geoffrey Bennington, *Jacques Derrida*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3).

2) 시몬 크로츨리(Simon Crotchley)는 일반적으로 테리다의 윤리적 전환을 논의한 첫번째 학자로 알려져있다. 그는 그의 책 *The Ethics of Deconstruction : Derrida and Levinas*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Library, 1999).에서 테리다와 레비나스를 함께 읽으면서 테리다의 윤리적 전환과 관심을 지적한다.

3) Martin Hägglund, *Radical Atheism: Derrida and Time of Life*. Martin Hägglund, *Radical Atheism : Derrida and the Time of Life*, Meridian (Stanford, Calif.: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8).

용 혹은 왜곡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서로 다른 의견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사실은 분명한 듯 하다. 데리다는 분명히 무신론적 입장을 고수하였지만 동시에 종교학자 혹은 신학자들과의 대화 또한 지속적이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그의 입장은 몇 가지 질문을 던지게 한다. 과연 무신론자 데리다에게 종교성이 있었는가? 아니면 신학자들이 오용한 것인가? 만일 종교적이었다면 어떻게 그 종교성이 그의 철학 안에서 드러나며 어떤 부분에서 신학 종교학 등의 관심을 끌게 되었는가? 마지막으로 그의 종교적 차원들이 어떤 종교적 사회적 함의들을 보여주는가이다.

데리다의 철학을 깊은 종교성 혹은 '종교적이지 않은 종교성'의 차원에서 접근하기 위해서 필자는 그의 인식론을 지식이나 정보가 아닌 그 이상으로 나아가는 부정신학적 인식론으로서 접근하려 한다. 이를 위해서 데리다의 써컴페션(Circumfession)과 데리다웨어(Derridaware)의 대립을 통해서 그의 완료된 지식과 정보에 대한 비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안적 유비로서 주장하는 피의 이야기를 살펴 것이다. 여기서 피는 피해자에게 피해를 무마시키거나 정당화하는 것이 아닌 열려진 인식의 방법으로서 사용된다. 데리다는 피의 이야기를 잘린 상처와 흐르는 피가 있는 할례를 통해서 발전시키고 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유대종교적 전통과 어떻게 연속성과 비연속성이 공존하는지를 보여준다. 그의 이러한 인식론적으로 열려진 지식은 할례와 어거스틴의 고백과 사랑의 질문을 통해서 부정신학적 색채를 띠게 된다. 데리다의 해체철학적 인식론은 닫혀진 데리다웨어에 대항하며 열린 인식론을 지향하고 결국 종교적으로 밀접한 함의를 지니게 된다.

2. 해체의 종교성

해체철학은 초기부터 신학과 종교학자들의 깊은 관심을 끌었다. 특별히 부정신학 등과는 깊은 대화가 이뤄졌다. *Derrida and Negative Theology*⁴⁾ 등에서 신학자들은 데리다의 철학이 가지고 있는 부정신학적인 면모들을 발견하고 토론하였다. 그의 해체는 선언적이고 명제적인 닫힌 교리적 개념들을 계속 부정하면서 부정신학적인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을 찾는 적절한 방법론을 제공해준 것이다. 부정신학과 데리다의 해체철학은 종결되거나 닫혀질 위험이 있는 담론들을 부정

4) Harold G. Coward, Toby Foshay, and Jacques Derrida, *Derrida and Negative Theology* (Albany, 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92).

한다는 점에 공통점이 있다. 데리다는 부정신학처럼 ‘… 아니고… 아니고…’의 문법을 사용했다. 하지만 데리다는 부정신학의 환호에 대해 조심스런 태도들을 보였다. 해체가 신성을 직접적으로 가리기지는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그는 해체철학이 가진 부정신학적 유사성을 인식했지만 그 차이점 역시 선명하게 하려 하였다.

데리다가 부정신학적 전통에 거리를 두는 데는 그의 해체철학적 성격에 기인한다. 데리다는 부정신학을 결국은 더 높은 존재를 규정하고 밝히려는 궁정신학의 하부신학으로 이해하였다. 부정의 부정이 아닌 궁정신학을 위한, 궁정신학과 유사한 신학이라는 것이다. 부정신학은 신이 개념화되고 규정되자마자, 이를 비판하고 부정한다. 이 점에서 해체철학과 유사하지만 데리다의 관점에서는 이는 표현된 개념을 해체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표현 혹은 궁정신학적 개념을 넘어서는 더 높은 신적 존재에 대한 궁정을 찾기 위한 방법으로 여긴다. 이런 의구심 때문에 부정신학은 단지 궁정신학적 개념에 비해 덜 소란스럽고 상대적으로 조용한 편인 더 지고한 신-언어의 궁정이며 또한 오히려 더 강한 의미를 가진 궁정 신학적 전술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부정신학의 부정 방법론은 해체철학적 관점에서의 부정보다는 결국 존재론적 신학을 벗어나지 못하고 존재, 존재 이상의 존재, 더 높고 더 순수한 방법에 의한 존재 아닌 존재⁵⁾를 추구한다고 본다. 부정이나 묘사할 수 없음은 하나님은 언어를 넘어서서 순수하게 완전하게 존재한다라는 또 다른 궁정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케빈 하트(Kevin Hart) 와 장 뤼 마리옹(Jean Luc Marion)은 데리다가 부정신학이 가진 철저급 진성을 간과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부정신학의 부정성은 신을 존재냐 비존재냐, 현존이냐 부재냐, 혹은 개념을 제시하느냐 아니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⁶⁾ 부정신학의 목적은 궁정신학의 상대적 대자적 위치로서 궁정신학의 부정에서 그 존재근거를 찾으려는 것이 아니다. 부정신학의 부정은 방법론으로 언어를 궁정하느냐 부정하느냐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부정신학은 달혀진 개념과 정의들을 부정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 도전케 하는 역동성에 초점이 있다. 부정신학은 부정을 통해서 새로운 가능성을 근원적으로 열어두고 있는 것이다. 이 개방성과 가능성이 해체철학과 부정신학의 대화의 이유 중 하나이다.

5) John D. Caputo, *The Prayers and Tears of Jacques Derrida : Religion without Religion*, Indiana Series in the Philosophy of Religion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97), 7.

6) Kevin Hart, *The Trespass of the Sign: Deconstruction, Theology, and Philosophy* (New York: Fordham University Press, 2000)., Jean-Luc Marion, *The Idol and Distance : Five Studies, Perspectives in Continental Philosophy*, (New York: Fordham University Press, 2001).

이 근본적 개방성은 부정신학과 대화할 뿐만 아니라 현상학적 종말론적 메시야 주의와도 이어진다. 데리다의 해체철학을 부정적 회의상대주의가 아니라 열망과 갈망이 가득한 메시야적 종말론으로 이해하게 한다. 타자에 대해 열망한다. 현상학적 종말론적 그리고 메시야적으로 소망하고 있다. 레비나스의 얼굴의 철학처럼 그는 타자의 얼굴을 열망하고 그래서 그 열망은 종말론적 메시야적 종교성과 닿고 있다. 존 카푸토는 해체와 열망을 연결지어서 평하길 “해체는 지식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라 믿음과 열망 때문에 가능하다. 신앙의 열정과 비밀없는 비밀은 열정에 휩싸인다.”⁷⁾ 이 때문에 데리다의 철학은 아포파시스보다는 아모스와 이사야의 예언자적이고, 기독교 신플라톤주의보다는 유대 예언자전통에 가깝고, 신비주의보다는 종말론적이며, 위-디오니시우스적 신비주의보다는 아브라함의 전통에 가깝다고 평하면서 데리다 철학의 동인은 신비적 절대자와의 연합에 대한 갈망보다는 예언자적-윤리적-정치적 열망에 기인한다⁸⁾는 평가를 받게 된 것이다.

3. 써컴페션 (Circumfession)과 데리다베이스 (Derridabase)

데리다는 해체철학이 가진 열망과 종교성을 죄프리 베닝턴(Geoffrey Bennington)과 함께 공저한 책, “자크 데리다 Jacques Derrida”⁹⁾에서 잘 드러내고 있다. 이 책에서 데리다는 자신의 철학을 완료된 형태와 논리적으로 가두는 것을 프로그램, 즉 “데리다웨어(Derridaware)”¹⁰⁾와 “데리다베이스(Derridabase)”¹¹⁾라 부르고 이들로부터 자유한 자신을 주장하기 위한 탈프로그램을 찾는다. 그것이 할례를 통한 피이다. 데리다 자신은 논리와 설명에 갇힐 수 없음을 주장하기 위해 완료된 형태의 철학으로서의 “자크 데리다”와 자기 자신 데리다를 구분짓고 있다. 데리다의 “써컴페션 Circumfession”은 “자크 데리다”에 대한 그의 응답으로서 나타난다.

“써컴페션 Circumfession”은 죄프리 베닝턴과 함께 공저한 책, “자크 데리다 Jacques Derrida”의 하반부에 각주형식으로 쓰여진 책의 일부이다. 이 책은 처음

7) Caputo, *The Prayers and Tears*, xxvi.

8) *Ibid.*, xxiv.

9) Derrida and Bennington, *Jacques Derrida*.

10) *Ibid.*, 16.

11) *Ibid.*, 315.

기획할 때부터 몇 가지 원칙을 세웠다. 베닝턴은 테리다의 사상을 교육적 논리적 원칙에 따라 어떤 인용이나 제한없이 서술하며 가능한 분명하고 선명하게 서술하는 것이 목적이었다.¹²⁾ 이러한 계획을 이끄는 것은 컴퓨터 프로그램이었다. 각 페이지를 상하로 나눈다면 상부에서는 베닝턴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뽑은 주제를 가지고 테리다의 모든 것을 설명해 나가고 하부에서는 테리다가 그의 글을 읽고 각 주 형식으로 답하는 것이다. 그리고 테리다의 서술은 베닝턴의 조직적 설명의 필연적 실패를 보여주려 하는 것이었다. 테리다는 이를 위해 마치 또 다른 자신인 것처럼 59개의 단락으로 구성하고 책의 중심주제중 하나인 할례처럼 이 책을 상하로 잘라서 서술해나간다. 베닝턴이 “자크 테리다”라는 조직화된 이름으로 테리다의 철학을 논리적으로 주제별로 설명한다면 테리다는 “자크 테리다”에 포용될 수 없는 또 다른 자신을 엘리, 피, 혈관, 상처, 할례 등으로 주장하려 한 것이다.

테리다웨어 혹은 테리다베이스는 베닝턴의 서술이 컴퓨터 프로그램 - ware, -base 처럼 기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운영되고 기술됨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컴퓨터를 이용해서 완전히 자신을 포용하고 설명해내는 시도는 완벽해 보여서 하나님God의 G와 죠프리Geoffrey 베닝턴의 이름과 결합시켜서 Geo-logical (logos), “Geo”ffrey Bennington 혹은 G's program,¹³⁾ ‘G’¹⁴⁾로 쓰기도 한다. 전능하게 테리다의 모든 것을 파악하는 G 죠프리는 geo-logic¹⁵⁾하다. 이러한 전능한 G, 베닝턴의 방법론은 테리다를 곤경에 빠뜨린다. 종결된 것처럼 모든 것을 아우르는 테리다에 대한 해설은 정작 테리다 자신이 더 이상 말할 것이 없게 만든다. “나에겐 더이상 베닝턴을 놀라게 할 만한 새로운 것들이 남아있지 않다.”¹⁶⁾ 베닝턴의 테리다웨어의 방법론은 테리다의 과거와 미래를 완전히 아우르면서 테리다의 미래를 닫아버린다. “자크 테리다” 철학이 테리다 본인을 숨막히게 만든 것이다.

4. 새로운 언어: 할례의 피와 살림

12) *Ibid.*, 1.

13) *Ibid.*, 30.

14) *Ibid.*, 26, 30, 45.

15) *Ibid.*, 134.

16) *Ibid.*, 16.

데리다는 베닝턴의 강력하고 전지한 G 프로그램 혹은 데리다웨어에 저항하고 도전하기 위한 자신의 새로운 언어를 찾는다.¹⁷⁾ 이 저항을 위해서 그는 데리다웨어의 깔끔한 정확한 언어에 대비하여 “거친 언어 crude words”¹⁸⁾를 찾는다. 그 과정의 어려움을 데리다는 피흘리기까지라고 표현한다. “나는 ‘다듬어지지 않은’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기 위해 쉬지 않고 피흘리기 전까지 싸웠다.”¹⁹⁾ 데리다는 거친 언어를 피묻은 언어로 이어간 것이다. 논리와 설명에 저항하는 거친 언어는 피같이 “반쯤 물같이”²⁰⁾ 흐르는 다듬어지기 전의 언어이다. 고체처럼 굳고 닫혀버린 데리다주의 혹은 데리다철학에 대비해서 자유로운 거침없는 새로운 언어를 피에서 발견한 것이다.

할례는 피이야기의 연속으로서 그의 삶과 철학에 있는 잘림과 상처, 그리고 그 곳에서 흐르는 피를 이야기하며 등장한다. 데리다는 할례의 상처를 단순히 자신의 생식기에 난 상처로 보지 않는다. 할례의 상처는 그의 일생에 난 상처이고 자신의 철학에 항상 등장한 것이라는 것이다. 그는 어릴 적 학교로부터 잘렸다. 나찌 치하에서 그는 이유도 모른 체 유대인이었기에 공공학교로부터 쫓겨났다.²¹⁾ 종교적으로도 잘려진 삶을 살았다. 그는 아랍계 유대인으로 살았고 탈무드를 배웠으며 많은 기독교 학문들을 공부하였다. 하지만 그는 무신론적 삶을 살았다. 자신은 할례를 받았으나 자기 자식에게는 할례를 주지 않았다. 그는 유대기독교 전통 속에서 살았지만 그로부터 분리되어 살았다. 그는 유대인이었고 지울 수 없는 표시가 몸에 있었으나 그는 무신론자였다. 데리다의 학자로서의 삶 역시 잘려진 부분들이 많았다. 그는 자신의 나라와 철학계로부터도 잘려져 있었다. 그의 국적은 프랑스였지만 명성은 고국 프랑스보다는 미국에서 유명했고 강의와 강연도 주로 미국에서 많이 이뤄졌다. 프랑스 내에서 그의 철학은 오히려 의심받았고 학위 인정도 늦게 받게 된다. 사회적으로도 유명했던 일화중 하나는 캠브리지 대학에

17) *Ibid.*, 30.

18) *Ibid.*, 3.

19) *Ibid.*

20) *Ibid.*, 4.

21) 드류대학의 교수인 에드워드 바링(Edward Baring)은 그의 책 *the Young Derrida and French Philosophy*에서 데리다의 종교적 전환에 대한 철학적 배경을 그의 초기부터 잘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종교적이란 종파적 의미가 아니다. 바링은 초기 데리다에서 그의 종교성을 찾는다. 데리다는 탈무드를 공부하였고 많은 기독교적 자료들, 시몬 베이유, 가브리엘 마르셀, 르네 르 센느같은 반 사르트르의 무신론적 실존주의적 자료들에도 익숙하였다. 그러나 바링은 데리다의 종교성을 유대, 기독교전통적 개념과는 다름을 지적한다. 데리다의 종교적 논의는 사르트르의 무신론적 실존주의를 비판하는 자료로서 등장한다.

서 그에게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하고자 했을 때 많은 분석철학자들은 연판장을 돌려서 공개적으로 그의 철학을 사기와 말장난이 가득한 철학이라고 주장하며 학위 수여를 반대하였다.²²⁾ 결국 캠브리지 대학은 그에게 명예학위를 수여했지만 그의 철학이 철학계로부터 잘리어 있음만 드러났다.

데리다의 잘려진 삶은 그의 드러난 삶과 감춰진 삶의 긴장관계를 드러내고 드러난 자신과 감춰진 자신간의 잘려진 긴장관계를 드러난 이름과 감춰진 이름을 통해 묘사한다. 이는 자신의 삶, 철학, 인종, 그리고 종교성 등의 연속성과 비연속성, 즉 잘림을 묘사한 것이다. 그의 공식적 이름인 작크 데리다는 유대전통에서 주어진 이름이다. 이에 비해 몇몇만 알던 어릴 적 이름 엘리는 비밀스런 자신만의 비밀 혹은 숨겨진 종교적 이름이다. 작크 혹은 어릴 적 이름, 재키 데리다라는 이름이 공인되고 알려지고 연구되는 자신의 철학을 의미한다면 그의 종교적 이름 엘리는 알려지지 않고 사용되지 않던 이름이다.²³⁾ 두 이름을 통해 그는 그의 삶을 알려진 재키와 비밀스런 엘리 사이의 삶 혹은 나눠진 인생으로 묘사한다. 이는 유대종교적 삶과 프랑스의 비종교적 삶이고 종교적 전통의 주어진 삶과 무신론적 선택의 삶이며 아랍유대의 삶과 라틴기독교문화 사이의 삶이기도 하다. 그의 인생은 두 세계를 살았지만 어느 세계에도 속하지 않은 삶을 산 것이다.

데리다의 삶과 철학이 잘리어 있다는 것은 그의 삶이 부서졌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의 철학적 종교적 잘림은 상처이지만 완절한 단절 혹은 분리를 의미하진 않고 있다. 이름은 잘리었지만 분리되진 않았고 철학은 잘림으로서 완전히 막혀버린 완결된 철학은 존재하지 않고 여전히 미완결의 철학만이 존재한다. 종교성도 잘려서 비종교적이지만 동시에 종교적이다. 종교성은 있으나 종교적이진 않은 것이다. 그가 종교와 종교전통에서 잘려졌지만 그렇다고 종교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 관계를 존 카푸토는 “연속성없이 그러나 완전히 뒤집어지진 않은”²⁴⁾ 상태로 묘사한다. 이 때문에 데리다를 “유대교없는 유대인”²⁵⁾으로 그의 종교성은 “종교없는 종교”²⁶⁾ “교리없는 종교” 혹은 “종교이전의

22) Barry Smith et al. Open letter against Derrida receiving an honorary doctorate from Cambridge University, *The Times* (London), Saturday, May 9, 1992.

23) Derrida and Bennington, *Jacques Derrida*, 91–92.

24) James H. Olthuis, ed. *Religion with/out Religion* (Routledge, 2001), 115.

25) *Ibid.*

26) Caputo, *The Prayers and Tears*, xix., Jacques Derrida, *The Gift of Death*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5), 49.

종교²⁷⁾로 묘사하기도 한다. 데리다는 신을 이야기하지만 그 신은 신 아닌 신이고 전통종교의 신 혹은 교리와는 전혀 무관한 신 아닌 신이고 교리 밖의 신이라고 할 수 있다.

데리다는 이 잘림과 상처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본다. 잘림이라는 아픔과 상처의 피해 대신 그는 잘림을 통해서 닫혀진 존재를 개방하는 기회로 삼는다. 더 나아가 그는 잘림의 상처를 자기 인생뿐만 아니라 형이상학적 동일성의 존재론과 기반주의에도 적용한다. 해체는 동일성의 철학의 아르케^{arche}를 자르고 더 나아가 아르케위에 세워진 권력의 상하구조, 하이에라키^{Hier-archey}를 잘라 붕괴시킨다. 그의 잘림의 상처는 개인적 상처가 아닌 사회정치 혹은 철학적 권리관계를 잘라 버리고 뒤흔들어 놀라게 한다.

잘리고 뒤흔든 철학은 책, “자크 데리다”의 기획의도처럼 데리다웨어를 잘라서 놀라게 할 틈을 만든 것이다. 잘림의 틈, 상처에서 놀라움이 등장한다. 놀라움이란 계산과 확률을 넘어서는 것이고 계획이나 가능성을 초월하는 것이다. 기대불가능한 것의 등장을 기대하고 꿈꾸고 열망하는 것이다. 그래서 카푸토는 해체를 전혀 계획하지 않은 것, 상상할 수 없는 것, 불가능한 것을 향한 열망이라고 정의한다.²⁸⁾ 여기서 열망함의 대상으로서의 불가능성이라 함은 가능성의 논리적 반대 개념 혹은 범주로서의 의미가 아니다. 열망과 갈망의 대상으로서의 불가능이란 가능이나 불가능이라는 양자의 범주 모두를 넘어서는 것으로 가능성이 있음 혹은 없음의 의미를 넘어서는 열망이다. 불가능이 의미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열망과 갈망이다. 이는 가능성 혹은 불가능의 범주적 의미 안에서가 아니라 가능/불가능의 지평을 넘어서서 다가옴에 대한 갈망이다. 데리다의 갈망과 열망은 통제될 수 없는 것이고 통제를 벗어나는 것이다. 열망이 통제가능 영역 안에 있다면 그것은 퍼센티지의 확률일 뿐 열망이 될 수 없다. 데리다는 이 통제할 수는 없는 열망으로 미래를 희망하고 꿈꾸고 갈망한다. 이것을 세속적 형태의 메시아적 종말론적 소망²⁹⁾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데리다는 구조적으로 올 것이지만 현재가 될 수 없는 것을, 오지 않을 것을 꿈꾸고 있다. 데리다는 절대비밀로 보호되는 미래, 즉 현재적이고 프로그램되고 예상가능한 시간이 아닌 미래, 즉 ‘절대적’ 미래를 위해 꿈꾸고 있고 기도하고 있다.”³⁰⁾

27) Caputo, *The Prayers and Tears*, 222., Jacques Derrida, "Shibboleth: For Paul Celan," in *Word Traces : Readings of Paul Celan*, ed. Aris Fioretos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4), 68.

28) Caputo, *The Prayers and Tears*. xix

29) *Ibid.*

5. 할례: 피흘리게 하라

데리다의 할례의 잘린 상처는 피 이야기로 이어진다. 피는 그의 썬컴페션에 있어 ‘상처,’ ‘잘림’의 개념과 함께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데리다는 그의 삶과 경험을 상처와 피로 묘사한다. 완결된 형태로 논의되는 자신의 철학을 “자크 데리다”라고 한다면 그의 피는 데리다철학을 분석한 베닝턴이나 전능한 데리다베이스가 분석할 수 없는 자신을 드러내고 있다.

데리다는 여러 가지 자신의 피 이야기를 한다. 안면마비로 인한 얼굴 수술과³¹⁾ 어릴 적 사고로 인해서 혈액검사를 받게 되었을 때³²⁾ 아기적 할례와³³⁾ 그의 어머니의 생리 기간³⁴⁾ 등을 언급한다.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그는 피에 대해 상반된 두 가지 반응을 보인다. 하나는 두려움이고³⁵⁾ 다른 하나는 매혹이다.

피는 그에게 두려움을 주었다. 그것은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신이 분석되고 채혈된다는 것이다. “내가 볼 수도 없고 보고 싶지도 않은 내 안의 보이지 않는 곳을 기계가 검사할 때마다 나는 분석되는 것이 두려웠다....”³⁶⁾ 간호사는 데리다의 눈을 가리고 주사기를 통해 맘대로 데리다의 피를 채혈하였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볼 수 없었다. 비록 몸 안의 볼 수 없는 피는³⁷⁾ 그의 것임에도 그는 자신의 것을 맘대로 할 수 없었다. 데리다는 분석될 뿐이었다. 반대로 그는 피에 깊이 매혹되어 끌리기도 했음을 볼 수 있다. 어린 재키가 검사를 위해 통에 담긴 자신의 피를 보았을 때, “나는 이를 쓰인 통에 담긴 피가 아름답다는 생각을 했다.”³⁸⁾ 자크 데리다라는 이름은 베닝턴이 이름짓고 잘 설명한 철학의 이름이다. 하지만 이는 한편으로는 자신이 아닌 자신을 주장하고 분석함으로서 두려움의 이름이다. 하지만 동시에 이 때문에 “영광스런 위안”³⁹⁾을 주기도 한

30) *Ibid.*, 73.

31) Derrida and Bennington, *Jacques Derrida*, 120.

32) *Ibid.*, 6–8.

33) *Ibid.*, 14.

34) *Ibid.*, 108.

35) *Ibid.*, 10.

36) *Ibid.*

37) *Ibid.*

38) *Ibid.*, 10.

39) *Ibid.*, 6, 8.

다. 이런 점에서 그의 피는 분석될까 염려하는 데리다와 분석될 수 없는 자신을 표현하고 싶은 자신을 묘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두려움과 매혹의 대상인 피를 보면 데리다와 베닝턴은 동일한 문장을 외친다. “헬관을 찾아라.”⁴⁰⁾ 비록 동일한 문장을 외치지만 그 의미는 두 사람에게는 상이하다. 간호사 베닝턴에게 이 문장은 테리다 안에 감추인 것을 찾아서 실린더 안에 가두려는 게 목적이다. 하지만 데리다에게 그 피는 실리더 안에서 굳어져 버릴 피이다. 살아있는 흐르는 피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동일한 주장을 한다. “헬관을 찾아라.”⁴¹⁾ 이는 항상 흐르는, 변화하는 자기 안의 퍽줄을 찾으라는 소리이다. 간호사 베닝턴은 데리다를 “자크 데리다”라는 이름 아래 잘 조직된 철학 속에 담는다. 좋은 이름 아래 담기지만 데리다는 매혹과 함께 두려움을 느낀다. 이에 비해 알려지지 않은 이름으로서 엘리는 데리다라는 응고되어가는 피에 대비하여 자신의 흐르는 피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엘리의 종교와 철학은 굳지 않은 흐르는 피를 즉 자신을 찾으려는 노력이다. 할례의 상처와 잘림의 유비를 통해서 닫혀지지 않은 철학을 묘사하듯이 그는 자신 안의 헬관을 찾음으로서 병에 담긴 굳은 피의 ‘자크 데리다’가 아니라 굳지 않은 항상 흐르는 자신의 철학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데리다의 피는 흐른다. 굳어진 ‘자크 데리다’에게 할례가 있음을 상기시킨다. 할례라는 상처를 통해서 닫혀진 데리다를 열고 새로운 가능성을 개방한다. 잘림은 상처가 아니라 개방을 위한 모험이 된 것이다. 할례는 문을 닫고 감시하는 가디언이 아닌 열어서 초대하는 주인이 되게 한 것이다. 할례의 자름과 피는 더 나아가 인식론적 발전으로 이어진다. 굳어진 “자크 데리다” 대신 살아있는 “엘리”라는 알려지지 않은 데리다를 주장하고, 이미 알고 있으나 모르는 지식과 인식론을 그의 종교 아닌 종교성과 연관지어 주장하고 있다.

6. 해체철학과 할례받은 고백 Circumfession

데리다는 자신의 피묻고 잘려진 철학을 표현하기 위해 자신의 철학을 지식정보 위에 기초하지 않는다. 마치 부정신학적 신비주의적 지식처럼 그는 자신의 할례 받은 지식을 일반적 인식론이 아니라 부정되고 부정되며 그래서 다시 묻고 묻는,

40) *Ibid.*, 6.

41) *Ibid.*

신비에 가까운 지식으로 만든다. 그에게 피묻은 지식은 정보보다는 고백에 가깝고 기도에 가깝다고 말한다. 얇 위에 얇을 더하는 테리다웨어의 기계적 정보체계는 자신의 피묻고 잘려진 삶을 표현하기에 적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자신의 기도와 고백이라는 언어가 자신을 표현할 거친 언어라는 것이다.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통해서 고백이라는 형태의 피묻은 인식론을 주장한다. 테리다는 할례 *circumcision*과 어거스틴의 고백 *confession*을 엮어서 “써컴페션 *Circumfession*”이라는 개념을 만들었다. 테리다의 써컴페션은 성 어거스틴과의 비교와 대화를 중요한 방법론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는 의도적으로 자신과 어거스틴의 고백적 유사성을 주장한다. 어거스틴을 적극적으로 독해하면서 그와 질문의식을 공유하고 그 질문에 자신의 대답을 덧붙인다. 이러한 그의 방법론은 그의 해체가 가진 의도 혹은 의도하지 않은 종교적 측면들을 불러들였고 그의 잘리고 상처나서 피흘리는 해체를 부정신학적 혹은 종교신비적 관점에서 접근하게 했다.

테리다는 자신과 어거스틴의 여러가지 공통점들을 지적한다. 먼저 이름을 비슷하게 사용한다. 자신의 이름, 저서의 이름 그리고 어머니의 이름 등의 공통점을 지적한다. 테리다가 성 어거스틴 Saint Augustine을 “SA”로 묘사할 때 자신은 “sa”⁴²⁾로 어거스틴과 유사한 이름으로 묘사한다. 테리다에게 어거스틴은 자신과 같은 길을 걷고 고민하는 다른 자신의 모습이 보인 것이다. 책 제목도 유사하다. 어거스틴의 고백록 *the Confession* 제목처럼 테리다는 *the Circumfession*으로 응답한다. 테리다는 자신의 이름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이름 그리고 정황을 통해서도 유사성을 지적한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이름은 모니카였고 테리다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장소는 캘리포니아, 산타 모니카에서였다.⁴³⁾ 친폐션과 써컴페션의 저술시기도 어머니의 죽음과 연관이 있다. 성 어거스틴이 그의 고백록을 어머니의 사후 저술했다면 테리다는 어머니의 죽음 직전 저술한 것이다.⁴⁴⁾ 이름 외에도 몇 가지 더 공통점들을 지적한다. 테리다와 어거스틴에게 어머니와의 관계는 기도가 항상 중심에 있었다. 어거스틴은 타락한 이교도 자녀가 돌아오길 기도하였고 테리다의 어머니는 전통을 버린 아들이 돌아오길 기도한 것이다. 자녀를 위한 기도와 눈물은 두 자식이 자신들의 신앙과 철학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두 아들 모두 어머니의 기도와 눈물을 기억하였다. 어거스틴의 기도와 눈물은 테리다가 승계하고 어거스틴의 질문들을 자신도 되뇌이며 할례받고 잘려진 상처난 고백을 해체철학 안으로 이어간다.

42) *Ibid.*, 58, 101.

43) *Ibid.*, 19.

44) *Ibid.*, 43.

데리다는 어거스틴의 질문들을 재질문하고 답하고 있다. 어거스틴은 자문하기를, “*Cur confitemur Deo scienti*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데) 우리는 왜 하나님에게 고백할까”⁴⁵⁾라고 묻는다. 이 질문은 고백의 이유와 필요에 대한 질문이다.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시는데 굳이 말해야하는가? 필요가 있는가? 고백은 하나님이 모르기 때문에 고백하는 것일까? 어거스틴에게 고백이란 자신에 대한 정보를 더 더하거나 빼는 것과는 관계가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어거스틴에게 고백은 지적, 인식론적으로 전혀 다른 위상을 가지고 있다. 고백이라는 질문은 소크라테스의 무지의 역설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모르는 것을 모르는데 어떻게 모르는 것을 알겠다고 질문하며 반대로 안다면 이미 알고 있는데 모른다고 질문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고 하면서 무지의 역설을 지적한다. 소크라테스에게 안다는 것은 무엇을 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무지하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며 그래서 끝없이 새롭게 추구하게 된다는 것이다. 무지의 지인 것이다. 어거스틴에게서 이 역설이 이어지고 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 모든 것을 안다면 왜 우리는 필요없이 더 고백하느냐는 것이다. 고백적 지식이 무엇을 더 더하는 행위라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게 되고, 반대로 더 더할 것이 없다면 고백은 무용한 쓸데없는 행동이 되는 것이다.

데리다는 이 질문에서 베닝턴의 “작크 데리다”라는 데리다 자신의 철학에 대한 자신의 썬컴페션의 인식론적 위치를 설명한다. 만약 전능한 G 프로그램 혹은 데리다웨어가 데리다에 대해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것이라면 그리고 데리다의 기도까지 알고 있다면 G는 그의 기도가 누굴 향한 것인지 그의 뜻은 무릎이 누굴 위한 것인지 다 알 것이라는 것이다.⁴⁶⁾ 전능한 데리다웨어에 대해서 데리다가 할 수 있는 저항적 지식은 어거스틴의 고백이어야 했다. 그것이 썬컴페션이다. 고백 컨페션이지만 자신의 할례를 매개로 피 흘리고 잘린 지식이다. 온전하게 모든 것을 다 포위하고 점령하는 지식을 그는 칼로 잘라내는 것이다. 자신은 그 속에 속할 수 없는 지식아닌 지식, 무지의 지식,⁴⁷⁾ 철학 아닌 철학, 데리다 아닌 데리다를 주장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그의 고백적 지식은 고백적이고 비밀스럽고 기도같다. 그의 지식은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해체적 운동가운데 끝없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도에 가깝다. 어거스틴의 고백처럼 데리다의 해체는 고백적 지식이고 기도의 지식이고 눈물로만 표현되는 지식이라는 것이다. 분명 데리다가 사용하는

45) Saint Augustine, *Confessions*, trans. Albert C. Outler and Mark Vessey (Barnes and Nobles Classics, 2007), 253. Derrida and Bennington, *Jacques Derrida*, 18.

46) Derrida and Bennington, *Jacques Derrida*, 188.

47) Ibid., 18.

고백, 기도, 눈물 등의 용어는 분명 종교적인 목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무신론적 세속적임을 더욱 분명히 할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의 고백적 비밀스런 기도의 할례받은 지식은 종교적인 면모를 가질 수밖에 없다.

데리다의 쉼 없는 고백은 어거스틴의 다른 질문,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질문에서 고백과 동일한 신비적 개방적 미완료의 운동을 보여준다. “*Quid ergo amo, cum Deum meum amo?*”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 나는 무엇을 사랑하는 것일까?”⁴⁸⁾ 이는 어거스틴의 하나님을 향한 목마른 사랑을 쉼 없는 탐구를 보여주는 질문이다. 그는 하나님을 찾고 찾는다.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그 사랑이 무언지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묻고 있다. 이런 과정이 사랑이다. 어거스틴의 고백록 첫 장에서 “내 영혼은 주를 찾기 까지 쉴 수 없습니다”⁴⁹⁾라는 고백처럼 사랑은 완료될 수 없고 쉴 수 없는 고백과 동일한 진행과 과정적 운동인 것이다. 사랑이 완성되고 완결된 것이라면 그 이후에는 사랑은 더 이상의 사랑이 아니게 된다. 사랑이 사랑인 것은 완성되지 않기 때문이고 항상 부족하기 때문이고 그래서 목마르고 사모하게 된다. 어거스틴에게 사랑은 완결될 수 없고 멈출 수 없는 목마름이고 쉼 없는 과정인 것이다.

데리다는 이 질문을 자기의 언어로 재질문한다. “내가 SA의 질문을 내 나라의 언어로, 동일한 문장으로 번역해서 사용하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일까?” 그리고 그는 이어서 “무엇보다 내가 사랑한다고 할 때 내가 무엇을 사랑하고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 것일까?”⁵⁰⁾ 라는 질문을 던지며 그 역시 목마른 탐구와 열망을 표현한다. 데리다 역시 어거스틴과 동일한 미완성의 사랑, 미완료의 사랑 이야기를 이어가며 가실 수 없는 칠망과 열망을 주장한다. 이런 바탕 위에서 데리다는 “어거스틴의 기도와 눈물”⁵¹⁾을 자신의 기도와 눈물로 이어간다. 데리다는 자신의 기도에 대해서 말하길 “… G의 프로그램은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는 듯이 말하지만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모를 것이다.”⁵²⁾ “… 나는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도를 평생 멈춘 적이 없다. …그에게 기도하며 여기에서 그가 나의 증인이 다.”⁵³⁾ 그는 스스로 자신은 기도의 사람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종교적 기도를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G로서의 베닝턴이 다 포용할 수 없었던 완료할 수 없는 자기

48) Augustine, *Confessions*, 230.

49) *Ibid.*

50) Derrida and Bennington, *Jacques Derrida*, 122.

51) *Ibid.*, 9.

52) Derrida and Bennington, *Jacques Derrida*, 39–40.

53) *Ibid.*, 56–58.

를 표현하는 언어이다. 완료된 논리나 설명을 넘어서는 새로운 언어가 기도이다.

독창적인 후기 구조주의 철학자인 존 카푸토도 어거스틴과 데리다의 사랑과 눈물을 이어간다. “내 언어속에서 내가 내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운다고 할 때, 도대체 나는 누구에게 기도하고, 누굴 위해 울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희망하고 한숨쉬고 꿈꾼다고 말할 때, 나는 무엇을 위해 희망하고 한숨쉬고 꿈꾸는 것일까? … 내가 하나님에 대해 열망에 차있을 때 무엇이 나를 열망하게 할까? … 내가 불가능한 것을 기대할 때 나는 무엇을 기대하는 것일까?”⁵⁴⁾ 카푸토는 데리다의 전개된 고백과 사랑이라는 언어를 발전시켜 눈물, 기도, 희망, 한숨, 그리고 꿈이라는 언어로 묘사한 것이다. 카푸토는 울면서 열망하고 희망하고 한숨쉬며 불가능한 것을 꿈꾸고 소망하고 있다. 데리다와 어거스틴의 사랑과 고백처럼 카푸토 역시 채울 수 없는 목마름 때문에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희망하고 꿈꾸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완료 없고 채울 수 없고 논리와 설명을 넘어서는 과정적 지식과 인식론은 논리적 합리성 대신 기도와 눈물의 고백이라는 형태를 필요불가결하게 선택한다.

데리다와 카푸토의 기도는 전통적 기도와는 다른 기도이다.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그의 하나님과 종교는 유대기독교적 언어이지만 그 유대 기독교 전통에서 잘려진 것이다. 데리다가 말하는 종교는 유대기독교적 언어이지만 유대기독교전통에서 잘려진 것이다. 그는 기도하지만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아닌 자기의 하나님⁵⁵⁾, 엘리의 하나님에게 하는 기도 아닌 기도이다. 그의 종교는 전통적 종교도 전통적 신에게 향한 것이 아니다. 그의 신은 형이상학적 신도 기독교의 신도 아닌 것이다. 전통적 기도가 전통적 신을 향한 것이라면 데리다의 기도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을 대상으로 한다. 그의 책 “엽서: 소크라테스에서 프로이드 그리고 그 너머를 향해서 *The Post Card: From Socrates to Freud and Beyond*”에서 주장하듯이, 엽서라는 시스템은 구조적으로 분실과 미배달 심지어 배달사고 등의 위험을 내재하고 있다고 말한다. 데리다는 우연히 발견한 엽서를 소개한다. 그 엽서는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 그려져 있었다. 그 그림에서 한 사람은 지시하고 다른 한 사람은 그 지시를 따라 글을 쓰고 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엽서에서는 플라톤과 소크라테스의 관계에 대한 역사적 상식과 달리 이 엽서는 플라톤이 지시하고 소크라테스가 저술하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역사적으로는 플라톤이 소크라테스의 말들을 글로 남겼다고 하지만 어쩌면 그는 자기의 생각과 철학을

54) Caputo, *The Prayers and Tears*, xxii.

55) *Ibid.*, 117.

스승 소크라테스의 입과 권위를 빌려서 주장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발상인 것이다. 플라톤과 소크라테스를 역관계로 묘사한 업서를 통해 테리다는 우편시스템이 내재적으로 가질 수 있는 분실 망실 배달오류 등의 가능성을 지적하고 이러한 오류, 실수들이 해석에서도 가능함을 지적한다. 이는 분명 헤겔 혹은 플라톤의 우편시스템과는 상이하다. 그는 어떻게 고대문서, 책들이 과거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지에 질문하는 것이다. 그는 이에 대해 회의적이다. 저자와 독자, 발송인과 수신인 사이에는 단절, 오해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자신의 전달하고 싶은 바를 책에 남겨서 독자에게 보낸다. 독자는 책을 통해서 그 목적을 찾아낼 수 있다. 그게 원래 목적이다. 하지만 그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는 것이다. 더군다나 그 독자의 수신이 역사의 뒤로 미뤄진다면? 즉 역사 후대에 다른 문화, 역사에 속한 독자가 그 책을 읽는다면 저자의 글은 전달이 될까? 더군다나 저자의 정체나 목적도 불분명하게 남고 오직 책만 남는다면 오해되거나 전혀 달리 이해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편시스템은 내재적으로 저자의 죽음, 상실, 차이, 그리고 연기 등의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무리 특정의 수신인이 있고 주소가 분명하다 할지라도 배달사고의 가능성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테리다의 기도는 바로 이 가능성 안에 있다. 그의 기도는 망실, 미배달, 연기 등의 위협이 있으며 어떤 응답이 있을지 모르는 타자로서의 신과의 관계인 것이다. 종교의 기도는 어디로 누구에게 가는지 분명하지만 테리다의 기도는 여기저기 떠돌 뿐이다. 테리다는 종교의 신이 아닌 그의 신에게, 전통종교가 아닌, 그의 종교 안에서, 그리고 종교적 기도가 아닌 그의 기도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

어거스틴의 지식 아닌 지식으로서의 고백, 채울 수 없는 사랑, 기도는 테리다의 써컴페션의 할례와 눈물을 통해서 인신론적 전환을 이루고 있다. 테리다의 지식론은 고백이고 기도이고 할례이다. 목마른 사랑이 가득하고 답할 수 없는 질문이 가득하고 이미 아는 지식에 더 더해도 더해짐이 없는 고백적 지식이다. 이는 지식 아닌 지식이고 알아도 아는 것이 아닌 무지이다. 그래서 그는 이를 “지식의 무지 learned ignorance”⁵⁶⁾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의 담론은 베닝턴의 Geo-“logic” 논리에 대항하는 고백과 회개의 언어인 것이다. 이는 “theo-G-logic” 프로그램에 대한 대안적 논리이며 되찾아야 할 이름⁵⁷⁾인 것이다. 다른 말로 “지위질 가능성 아래 글” 혹은 존재론적으로는 “두 줄 그어진 존재론”⁵⁸⁾인 것이다. 지식이 확정되지도 닫혀지지도 않고 항상 새로운 가능성과 변화

56) Ibid., 18.

57) Ibid., 28.

58) Jean-Luc Marion, *God without Being : Hors-Texte, Religion and Postmodernism*

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테리다에게 지식은 열려져있지만 동시에 닫힌 것이기도 하다. 알지만 아직 모르는 것이다. 어거스틴의 고백적 지식처럼 이미 정보로서는 다 알려진 것이지만 고백은 정보가 아닌 비밀로서 작동한다. 더 이야기할 것이다. 항상 고백해도 충분치 않다. 그래서 그에게 지식은 무지한 것이다. 이미 알지만 아직도 모르고, 모르기에 알고자 고백하고자 말하게 된다. 할례받은 지식은 차별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잘려서 피묻은 지식으로 열려져 있다. 닫힌 지식을 자름으로서 틈을 만들고 비밀을 만든다. 써컴페션은 테리다의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비밀에 대한 것이다. 기도와 눈물이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는 지식의 철학을 보여주는 것이다.

데리다의 피를 통해서 그는 완료될 수 없는 자신의 언어를 찾고 더 나아가 인식론적 지식론적 화장을 이룬다. 이 부분에서 그는 종교와의 유사한 부분들을 거닐게 된다. 분명 그의 언어는 유사종교적 단어를 사용하지만 종교가 아니다. 그렇다고 순수하게 철학적이라고만 하기도 어렵다. 그의 잘려진 철학은 전통철학과도 전통종교와도 다른 새로운 길을 찾는 모습을 취하고 있다. 종교와 다른 종교이고 전통기도와는 다른 기도를 말하고 죄의 고백과는 다른 고백으로 철학을 말한다. 이러한 점들에서 테리다는 부정신학과 유사한 길을 걷게 되고 그의 종교 아닌 종교성이 돋보이게 된다.

7. 결론

데리다의 피묻은 해체철학적 인식론은 닫혀진 테리다웨어와 테리다베이스의 체계에 대항하고 도전하고 있다. 할례의 상처처럼 써컴페션은 닫혀진 인식론을 할례함으로서 열고 피를 흘리게 한다. 완결된 지식체계와 theo-logic의 권력을 잘라 비판하면서 열린 지식의 틈을 만들고 닫혀버린 미래에 대해서 할례의 상처와 상처에서 흐르는 피는 열린 시간과 가능성을 열고 있는 것이다. 그의 철학은 지식에 지식을 더하는 학문이 아니라 항상 새롭게 변하는 흐르는 지식인 것이다. 이를 표현하기 위해 그는 고백, 기도, 눈물, 사랑 등의 거친 언어를 제시하며 열린 문을 찾는다.

이러한 테리다의 노력은 자신의 철학과 지식을 기계적 정보체계가 아닌 피흘리는 부정신학적 지식과 상통하게 한다. 이러한 그의 주장은 인문학적으로 종교학

적으로 함의를 가진다. 인문학적으로는 지식을 종료된 지식의 누적으로 보지 않게 하고 인문학적 지식의 고유한 특성과 공헌이 무엇인지 알게 한다. 인문학적 지식은 과학적 지식처럼 최신지식이 최종승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미 밝혀진 정보는 과학적으로는 더 이상 새로울 것 없는 과거의 지식이 되지만 인문학적으로는 아직도 피흘리는 열려진 지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종교학적으로도 종교의 본질이나 계시 등의 성격에 대해서 설명하게 해준다. 종교를 신학적으로 종교적으로 해설하고 저술되지만 그 본질 혹은 사건은 종결될 수 없고 해명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설명하지만 다 설명되지 않고 계속해서 그 본질을 드러내며 새로운 진술을 구진술 가운데서 던지고 있다는 것이다. 마치 십자가의 신학이 피흘리는 사건으로 매주 교회에서 반복되고 그 사건을 드러내듯이 종교와 계시는 드러났으나 아직 다 드러나지 않은 진행과정적 사건으로 드러나고 감춘다는 것이다.

데리다의 할례받은 인식론은 철학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쉽게 안다고 말하고 주장하고 단정짓는 경향과 권력에 대해 도전한다. 지적으로는 겸손을 가르치고 철학적으로는 인식론적 개방성을 종교적으로는 진행 중인 계시사건에 대해 주장하는 것이다. 그의 철학은 철학적 신비주의 혹은 철학적 부정신학의 인식론적 기초를 피와 할례위에서 놓은 것이고 종교적 계시나 사건을 이해함에 있어 중요한 철학적 문을 열고 있다고 하겠다.

주제어 : 자크 데리다, 써컴페션, 부정신학, 할례, 피, 데리다웨어, 데리다베이스

원고접수일: 2012년 11월 1일

심사완료일: 2012년 12월 6일

게재확정일: 2012년 12월 7일

참고문헌

- Augustine, Saint. *Confessions*. Translated by Albert C. Outler and Mark Vessey: Barnes and Nobles Classics, 2007.
- Baring, Edward. *The Young Derrida and French Philosophy*, 1945–1968. Cambridge ;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aputo, John D. *The Prayers and Tears of Jacques Derrida : Religion without Religion*, Indiana Series in the Philosophy of Religion.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97.
- Caputo, John D., Gianni Vattimo, and Jeffrey W. Robbins. *After the Death of God*.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7.
- Coward, Harold G., Toby Foshay, and Jacques Derrida. *Derrida and Negative Theology*. Albany, 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92.
- Critchley, Simon. *The Ethics of Deconstruction : Derrida and Levinas*.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Library, 1999.
- Derrida, Jacques. *The Gift of Death*.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5.
- . "Shibboleth: For Paul Celan." In *Word Traces : Readings of Paul Celan*, edited by Aris Fioretos.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4.
- Derrida, Jacques, and Geoffrey Bennington. *Jacques Derrida*.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3.
- Derrida, Jacques. *The Post Card : From Socrates to Freud and Beyond*. Translated by Alan Bas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7.
- Hägglund, Martin. *Radical Atheism : Derrida and the Time of Life*, Meridian. Stanford, Calif.: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8.
- Hart, Kevin. *The Trespass of the Sign: Deconstruction, Theology, and Philosophy*. New York: Fordham University Press, 2000.
- Marion, Jean-Luc. *God without Being : Hors-Texte, Religion and Postmodernism*.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1.

- . *The Idol and Distance : Five Studies, Perspectives in Continental Philosophy.*, New York: Fordham University Press, 2001.
Olthuis, James H., ed. *Religion with/out Religion*: Routledge, 2001.

<Abstract>

The Circumcised Epistemology and Religiosity without Religion of Jacques Derrida:

the cut and blood of deconstruction

Isaac Kim(Drew University)

This article seeks a religious and epistemological way to communicate between the deconstruction of Jacques Derrida and religion. Derrida declared himself an atheist, but his idea of deconstruction has often a conversation with theologians, because it strongly implies deep religiosity, especially that of apophatic theology which is Derrida's religio-philosophical prayers and tears, or religiosity without religion. He articulates them through the narrative of blood in the circumcision and circumfession (circumcised confession.) He explains his philosophy as bloodstained one. The blood comes from cuts, which are caused by the circumcision. Against the closed body, the cut and circumcision attempt to open the closed, and reveal the process of becoming. He suggests some new languages such as the idea of confession, love, and blood, which can speak beyond the boundary of closed structures. The blood is one of them. They resist the dominance of some logical programs, such as Derridaware and Derridabase, which circumscribe all idea and life of Derrida. For the arguments, he dialogues with St. Augustine in *the Confession* and his *Circumfession*. Augustine strongly affects Derrida theologically. Derrida calls Augustine 'SA,' and himself 'sa,' and adopts the way of confession as his epistemological way. Derrida thinks of his deconstruction not as a kind of information nor knowledge, but as that of confession. The confession as the way of apophasis epistemology allows

him to speak eschatologically and deconstructively. Derrida follows Augustine, and develops the circumfession which is the confession with circumcision. The openness of the circumfession is more developed in the idea of blood and love. They stand for the endless development of him and endless desires for newness and openness, which allow a contact point between Derrida and religion.

Key words: Jacques Derrida, Circumfession, Apophatic theology, blood, circumcision, Derridaware, Derridabase